

2019 추석 가정예배

추석 가정 예배의 취지

해마다 추석이 되면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거나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제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선인들의 묘소를 찾고 돌볼 수 있으며, 사후라도 그들을 추억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식 사 인 도 자
 이 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2.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3. 찬 송 393(통 447) 다 함 께
4. 기 도 인 도 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 성경봉독 빌립보서 4 : 4~9 인 도 자
 (설교 없이 인도자가 성경본문만 봉독한다. 가족들이 함께 읽어도 좋다.)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갓갓하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6. 목 상 다 함 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믿음의 가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함께 드리는 기도 다 함 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간증이 멈추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 찬 송 588(통 307) 다 함 께
9. 주 기 도 다 함 께
 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새벽공기에
발걸음마저 가벼워지는 가을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올해는 조금 일찍
추석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추석 명절에
분주하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놓고
온 가족이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받은 복을 함께 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친지들과 둘러앉아 송편을 빚으며
오순도순 정감어린 이야기도 나누시고
연로하신 부모님, 부쩍 자란 손주들과 조카들 따스하게
손도 잡아 주시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속마음 솔직하게
고백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으로 차오르고, 무르익은 오곡백과처럼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가는 벅찬 감동을
가슴 속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고향 교회에 꼭 들르십시오.
고향 교회를 지키시는 목회자님을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들에게도
한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소망의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9월 한가위에
담임목사 김경진 드림